

대행 스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공이 엄연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토론 형식으로 서로 질문 문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가야 옳은지 그것을 제가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는 데는 별의별 천차만별의 뜻으로써,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한두 건이 아닌 반면에 우리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다스리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주어지겠죠. 알고 범하는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다가 한세상을 다해서 떠날 때는 어떤 분들이고 다 가져가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은보화라도 바로 방문 안에서 배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대문 안에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친척이 많고 자식 부부지간이 아무리 버릴 수 없는 인연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동구 바깥에서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나온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처럼 그 업식이 쫓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간 그 차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자 난자, 즉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나의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자기가 선업을 지었다면 선업의 그림자가 거기 포함될 것이요, 악업을 지었다면 바로 악업의 그림자가 거기 따라설 겁니다.

그래서 그 몸뚱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몸뚱이 속에 악업과 선업이 동시에 들어서 모두 지금 현세의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복통이 나게끔 마음이 생기고, 착잡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지로 애고가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또는 업보성이 생기고, 세균성이 생기고 윤회성이 생기고, 이 모두가 자기가 살아온 대가입니다. 그것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것을 한국에서는, 이 불가에서는 바로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숙명통에,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내 몸뚱이 속에 실려 있는 그 그림자, 그 의식들, 그 모습들이 다 내가 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의에서 오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타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돌려야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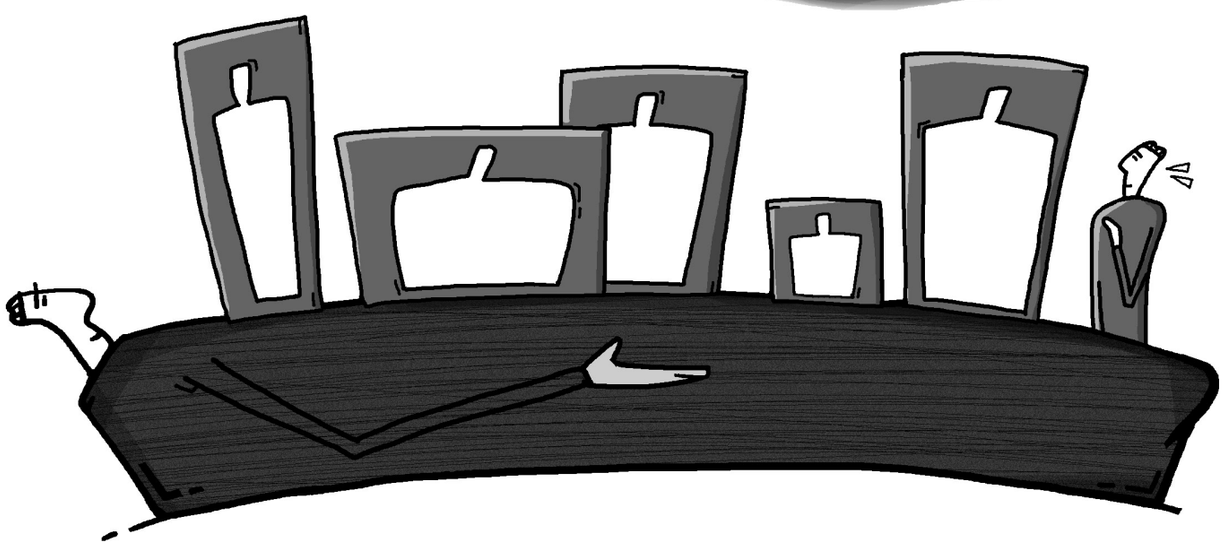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언짢은 것이나, 좋은 것이라면 바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 일임하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과거로부터 그림자처럼 그 컴퓨터에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다시 거기다 입력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에다 다시 맡겨 놓는 것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당신만이 모든 거를 다 간파할 수 있어. 어떠한 애고든지 어떠한 병고든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지켜보다 보면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참선입니다. 무조건 틀고 앉았다고 그래서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모든 일체, 앉으나 서나 또는 자나 깨나 일하나 어떠한 거든지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빚어지는 그 가지가지 천차만별의 생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를 모두 현실에 나오는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 끄달리고 바깥으로 신을 찾고 바깥으로 부처님을 찾고 바깥으로 칠성, 관세음 모두 찾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잘못 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자기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고 자기로부터 생활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인연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로 인해서 모두 벌어진 것을, 자기로 인해서 나오는 것을 자기로 인해서 또 거기다가 맡겨 놓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몸뚱이가 여러분인 줄 알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뚱이는 나의 집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관리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말하자면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물질인 이 몸뚱이는. 그러나 그 의식들과 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떠한 애고가 있더라도 애고가 거기서 나온 거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다시금 입력을 그 자리에다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면서 현실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것이 무조건 무너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개선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자유스럽게 걸어갈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몸뚱이 안에 과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지금 현실에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거고 현실은 공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도 바른쪽 왼쪽 조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쪽 왼쪽 그 핵심에서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사대로 통신을 해서 다들 그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는다면 그런 작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나다' 그러고 '나뿐이지, 뭐.' 그러고서 내 속에 있는, 작용하는 그 의식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이만하면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내 마음이 그러니 이 속에서들도 그렇게 '너가 너라면 나도 나다.' 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몸에 파워도 올 수 있고 어떤 회사의 직원들이 파워를 낼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한 몸뚱이가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계 50%와 물질계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상대적 원리로써 이것이 같이 화합해서 작용하는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데도 회사에 나가든지 어딜 나가든지 인연의 법칙으로써 인연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는 제자도 있고, 모두 이러한 인연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러한 모든 인연들이 성립이 되지 않았더라면 공부할 수 있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하나 이렇게 켠다 하더라도, 촛불을 하나 켠다 하더라도 초의 인연, 심지의 인연 또는 만드는 사람의 인연, 보는 사람의 인연, 켜는 사람의 인연 모두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연의 법칙이 아니라면 우리가 개발이나 과학이나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과학하고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자 그냥 그대로 여여한 자유인이 살 수 있는 여여한 생활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 옹졸해서, 즉 말하자면 아주 가깝게 우리가 한 식구를 본다면 한 식구만 보이지만 넓게 본다면 인생도 네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네 부모 따로 찾을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죽어서 다시금 또 딴 집에 가서 태어나고 딴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연방연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구름이 모였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럭하다 보니까 넓게 생각을 한다면 네 구름 내 구름 찾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 22면으로 계속

